

향기로운 예물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주정, 주일, 절기 헌금(이름/헌금종류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성탄)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영성(신화순) 구기학 김중선(박영숙) 김중진(한안나) 김대이 박승현 박종삼(이명원) 백성원(안지영) 유현호(이영미) 유호근(손영화) 윤병용(백남실) 윤영준(박진숙) 윤정호(유옥자) 이상희 이옥남 이종문 임병문(박금옥) 장성자 정경석(박지순) 정영심 채만기(장은주) 채명엽 최정규(김미영) 황상근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영성(신화순) 구기학 김대한 박종삼(이명원) 박지순(정경석) 백성원(안지영) 안지영(백성원) 윤병호(양영옥) 이경자(주경덕) 이종문 정옥순 채만기(장은주) 채명엽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정태진(노윤경) 이필레 김윤주(오택현) 김경엽(손정아) 김병울(이영숙) 김정연B(강준식) 김정자 김지한(유소정) 김춘화 민옥희(윤순한) 박지순(정경석) 방복순 백성원(안지영) 서재희(김현구) 손영화(유호근) 송다해 송순량 송형기(김현숙) 에스더여전도회 영영분(천세력) 윤영준(박진숙) 이동찬 이미자 이옥남 이종문 전순봉 채명엽 최성현 무 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아리인 김이안 김준구 민옥희 박민서 박순자 박승현 방복순 서로이 서로하 심순옥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이 이상희 이소은 이아른 정서연 정영학 주성탁 최귀남 최봉순 최선미 하세련 홍은민 홍준민 무 명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44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예배소서 6장 1절 ~ 9절			
월요일	예배소서 6장 10절 ~ 17절	목요일	잠 언 10장 17절 ~ 32절	
화요일	예배소서 6장 18절 ~ 24절	금요일	잠 언 11장 1절 ~ 15절	
수요일	잠 언 10장 1절 ~ 16절	토요일	잠 언 11장 16절 ~ 31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시무장로	강영성 김병울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진재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상길			
은퇴장로	방현옥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정태진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윤주		
찬 양 대	지 위 자	할 렐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시온 · 에 덴 : 최원지 엔 젤 :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트	김안나 이수경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진숙	
		수 리 남 : 안석철 이성옥	A X 국 : 김해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협력선교사	미 국 : 최윤희	모 장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맥 시 코 : 김홍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할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3. 10. 22.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기

욥기 37장 1~13절

설교: 이진우 목사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들은 참으로 엘리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며, 자신이 보는 상황과 모습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지식과 논리, 교만함으로 상대방에게 거침없이 내뱉는 엘리후의 이러한 말들은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말이 길어지면서 논리적 허점과 교만함이 드러남도 봅니다. 분명 욥도, 앞서 말했던 친구들도 이러한 허점을 모두 알고 있는데, 엘리후 자신만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선배로, 신앙의 선배로 권면하고, 교훈할 때 나는 엘리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이시라.” 성도는 우리의 평생의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며 더욱 말하는 것을 삼가 조심하는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1.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길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께 기도 합니다. 다른 이와 소통할 때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음성언어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수어를 통해 소통합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도 가장 기본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비물질적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잠언 저자는 입을 지킨다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말을 조심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하며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자연현상에 대해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앞선 본문과 다르지 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메시지를 반복하기 위해 가져온 소재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즉 소재만 달라졌을 뿐, 욥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말만 길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데, 단지 내 주관과 경험에 근거하여 무언가를 강요한 적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베뢰아 성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여 삶 속에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한 주간은 더욱 들은 말씀대로 말만 많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2. 역지사지의 자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 엘리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연현상에 대해 이토록 길게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라기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으니, 욥 당신에게 임한 고난도 무조건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 본인이 욥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과연 아무런 의구심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막상 자신에게 큰 비극이 닥쳤다면, 욥에게 들려준 조언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겸손한 인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죄인들이 지복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죄인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내시고, 그 자리에 자신이 친히 대신 서 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저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련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려 죽으심으로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롬5:8). 그러니 성도는 이토록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은 실천하지 못할 조언을 쉽게 건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조심스럽게 헤아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지 더욱 상고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말하기 훈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완전함에 이르기가 불가능하다고는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더욱 힘써 훈련하며 노력할 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도는 믿음의 말, 경건한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비난의 말, 불신앙의 말은 결국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며, 기뻐하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루도 그 훈련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9 - 44

2023. 10. 29.

대한예수교장로회

성 현 교 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태복음 12장 13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 임 목 사
Senior Pastor

이 진 우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1부] 오전 7시	사회: 최 기 훈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278(통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다 갈 이
[Praise]		
대 표 기 도	[1부]김종진집사 [2부]임만순장로 [3부]최기훈장로	
[Prayer]		
성 경 봉 독	욥기 37장 14~24절[구약p.797]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3부] 내 주는 강한 성이요(Martin Luther)	다 갈 이
[Anthem]		
설 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갈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286(통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다 갈 이
[Praise]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예배시 꼭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최 기 훈 장 로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성	시	시편 100편 4절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542(통340)장
기	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성 경 봉 독	마가복음 5장 21~43절(신약p.60)	김 종 진 집 사
찬	양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광	고	이 진 우 목 사
찬	양	찬송가 545(통344)장
축	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정 태 진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_____	다 갈 이
성 경 봉 독	_____요한이서 1장 7~11절(신약p395)_____		인 도 자
설	교	_____복음을 기억하며 살기_____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렘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1:3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록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월~금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 광고
- [태국 선교 보고]
다음 주일(11/5) 찬양 예배 시 태국 협력 선교사인 정세미 선교사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 [2023년 하반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시143:1)라는 주제로 하반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가 추수감사주일(11/19)까지 진행됩니다. 자신의 순서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순서지 참고).
 - [학습, 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위한 문답 공부]
오늘(29일)은 입교 및 세례자 교육이 오후 2시 로렘나무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11월 4일(토) 오후 5시 로렘나무에서 문답식, 11월 5일(주일)은 수세식이 있습니다.
 - [봉사자(교육, 찬양, 봉사, 안내)위로회]
교회 봉사자 위로회가 오늘(29일) 찬양 예배 후 있습니다(각부서와 위원회에서 카폴로 이동해 주시고, 이동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시면 됩니다).
 -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원 모집]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로 봉사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며 찬양으로 봉사하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할렐루야 찬양대: 윤영준 장로, 장윤주 집사 ■ 시온 찬양대: 최원지 선생, 정계숙 권사
 - [교역자 사임]
교구, 행정, 청년부, 중고등부 지도로 봉사하셨던 정태진 목사님께서 오늘로 사임하십니다.
 - [10~11월 행사 안내]

10월 29일(주일)	교육, 찬양, 봉사위원회 위로회/ 문답공부
11월 4일(토)	문답식
5일(주일)	수세식
12일(주일)	성찬식
13일(월)~17일(금)	예배예식 기도회
16일(목)	수능기도회
19일(주일)	추수감사주일/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 예배
26일(주일)	연합남전도회 헌신예배/ 회계 감사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교육, 찬양, 봉사위원회 위로회	

- ◎ 교우소식
- 정상래 집사(사랑1/고척1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허리 골절 수술 후 입원 중

- ◎ 담임목사 동정
- 11월 2일(목) 영등포시찰회 모임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담 임 목 사	김재인 집사	장윤주 집사, 김현진 집사/ 김종진 집사, 한안나 집사	총성 믿음	특별 신도림,광명 한나 여전도회
다음주	박복례 권사	박복례 권사	지상건 집사, 이복현 권사/ 이한웅 집사, 김순옥 권사	믿음 등촌 부천 목동, 일산	드보라 여전도회
순서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10월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도	사회/인도 기 도
1주(05일)	배경철 장로	김형국 집사	박권제 장로	배경철 장로	배경철 장로 김형국 집사
2주(12일)	임만순 장로	방원식 집사	최성현 장로	임만순 장로	임만순 장로 채만기 집사
3주(19일)	박권제 장로	채만기 집사	윤영준 장로	박권제 장로	담 임 목 사 김경엽 집사
4주(26일)	최성현 장로	김경엽 집사	박종삼 장로	최성현 장로	정기성 장로 박권제 장로
예 배 안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